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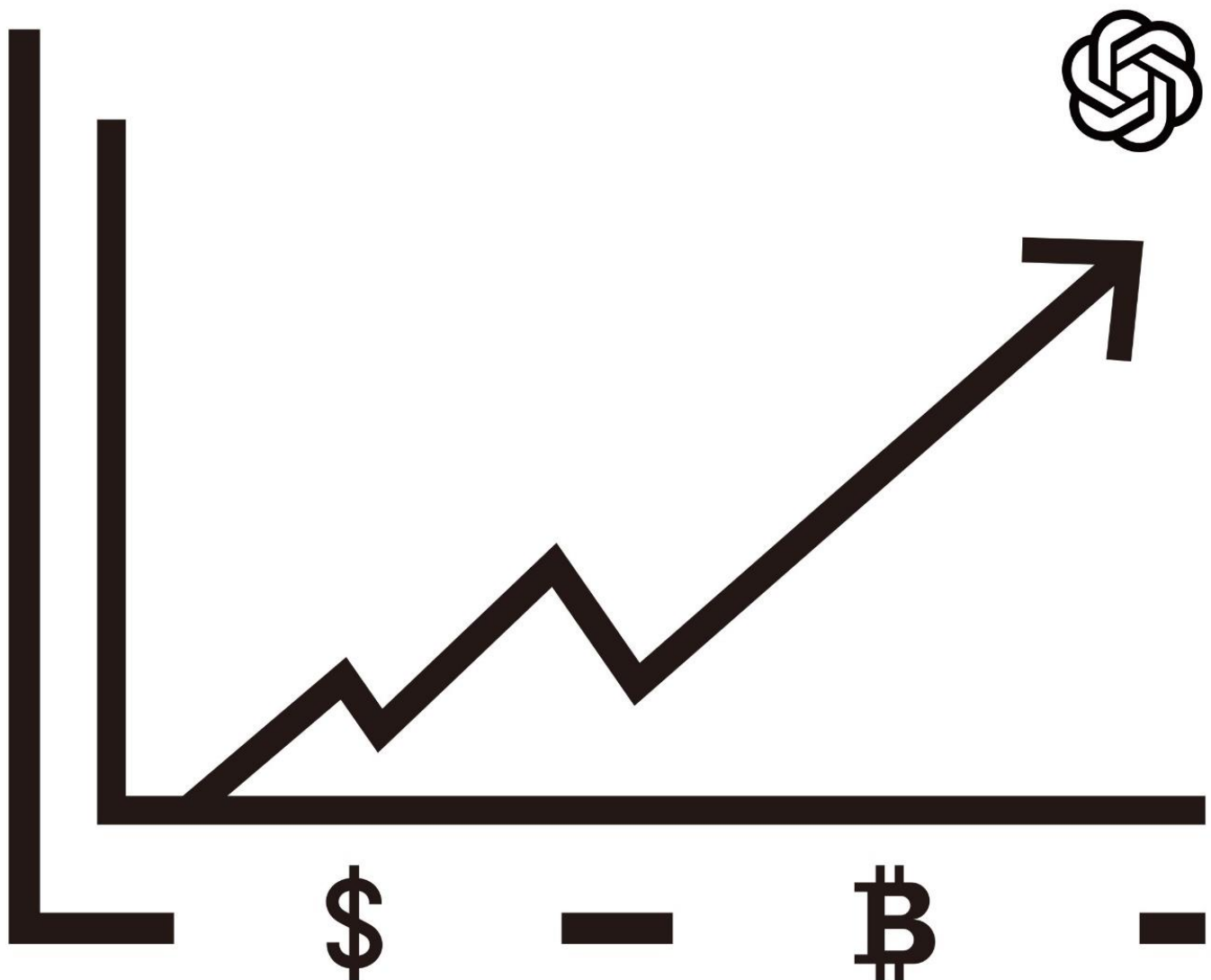
전략공감 2.0

Strategy Idea

정부 보조금으로 보는 중국의 산업정책

칼럼의 재해석

AI Capex의 게임 이론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

Strategy Idea



글로벌 투자전략 - 신흥국

Analyst 최설화

02. 6454-4883

xuehua.cui@meritz.co.kr

정부 보조금으로 보는 중국의 산업정책

- ✓ 작년부터 중국 상장기업의 정부 보조금 총액 감소, 재정 여력 약화 영향 가시화
- ✓ 단 2차전지, 자동차, 통신, 태양광 등 산업 지원은 확대 → 공급과잉 해소 가시성 낮음
- ✓ 대신 반도체, 디스플레이, 정유/에너지 지원은 소폭 축소

중국 상장기업의 정부 보조금 수령 현황

중국 상장기업의 정부 보조금
수령 현황을 통해 산업정책 파악

중국의 산업정책에서 정부 보조금은 오랜 기간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어 왔다. 정부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적자 환경에서도 기업의 기술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해 왔다. 상장기업들은 투자를 확대하거나 R&D 활동을 강화할 때 주로 정부 보조금을 받으며, 보조금은 현금이나 유형자산 형태로 지급된다. 이러한 보조금 수령 내역은 상장기업들이 사업보고서의 부록에 취득 금액을 공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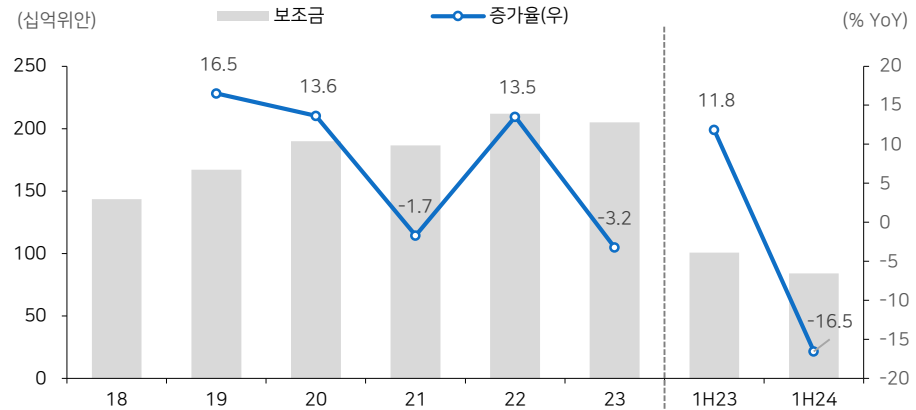
본 자료에서는 미중 무역 갈등이 시작된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의 상장기업 정부 보조금 데이터를 분석하여, 산업별 보조금 변화와 그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분석에 사용된 표본 데이터는 외국인이 직접 매매 가능한 2,778개의 우량기업 중 2018년부터 현재까지 정부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수령한 2,418개 상장기업을 기준으로 한다.

동향1: 보조금 총액 감소

동향1: '23년부터 정부 보조금 총액이 감소하고 있다. '23년 표본 상장사의 보조금 총액은 2,050억 위안(약 39조원)으로 전년대비 3.2% 감소했으며, 올해 상반기 보조금 총액은 839억 위안(약 16조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16.5% 줄었다. 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추세와는 대조적인 변화이다. 이러한 감소는 주로 정부 보조금의 주요 출처였던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이 악화된 데다가, 중앙정부의 재정 수입마저 감소하면서 지원 여력이 약화된 결과로 보인다. 한편 경기 둔화로 인해 상장기업의 순이익이 해당 기간 정부 보조금보다 적거나, 보조금을 수령했음에도 적자를 기록한 기업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해 올해 상반기 18.7%에 달했다. 만약 앞으로 중국 정부의 보조금이 추가로 감소한다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는 기업들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23년부터 주요 상장사가 취득한
정부 보조금은 감소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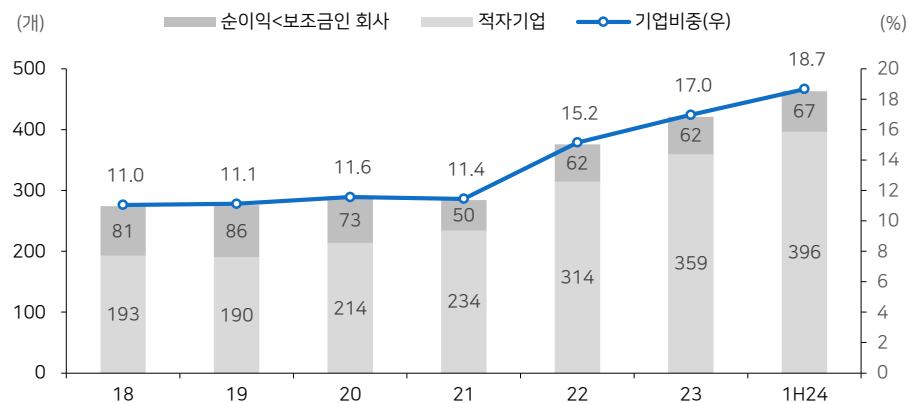
그림1 중국 주요 상장사*의 '24년 상반기 보조금은 전년동기대비 16.5% 감소



주: 외국인이 직접투자 가능한 2,778개 상장사 중 보조금 지급액과 완전한 데이터를 보유한 2,481개 기업 대상으로 정리
자료: Wind,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순이익이 보조금보다 적거나
적자인 기업 수와 비중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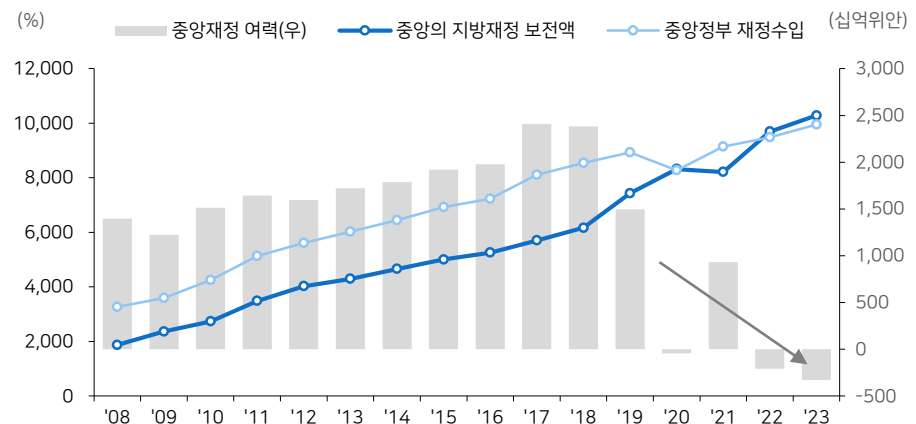
그림2 순이익이 보조금보다 적거나 적자인 기업 수, 전체의 18.7%까지 증가



주: 외국인이 직접투자 가능한 2,778개 상장사 중 보조금 지급액과 완전한 데이터를 보유한 2,481개 기업 대상으로 정리
자료: Wind,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중앙정부의 재정여력도
점차 약화

그림3 중앙정부의 재정여력도 점차 약화



자료: 재정부,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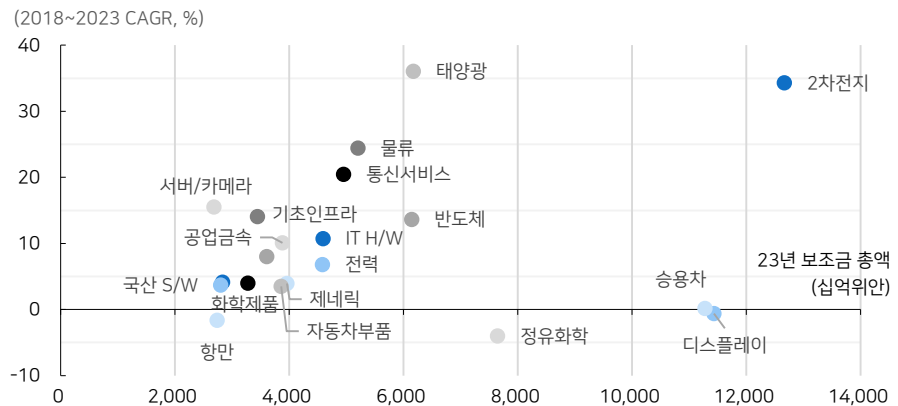
동향2: 신성장산업에 대한 지원은 확대 또는 유지

동향2: 신성장산업에 대한 보조금은 지원은 유지됐다. 우선, 2차전지와 자동차 및 부품 업종의 보조금은 늘었다. <그림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차전지는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았던 업종이다. 올해 상반기에도 전년동기대비 13% 늘어난 73억 위안(약 14조원)을 받으면서 1위를 차지했다. 한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도 각각 전년동기대비 0.3%, 40% 증가했다. 미국의 IRA 법안 대응과 중국 내 전기차 산업의 가격 경쟁 심화에 정부 지원이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 외 통신, 열차장비, 전력장비, 바이오 등 산업에 대한 보조금도 늘었다.

한편 올해 보조금이 작년 대비 뚜렷하게 감소한 업종은 디스플레이(-43%)와 정유/에너지(-75%)이다. 특히 디스플레이는 '23년 보조금 기준으로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았으나 올해 상반기는 전년대비 43% 줄었다. 이는 '22~'23년 디스플레이 기업들의 본업 실적 부진에 보조금이 일시적으로 크게 늘었던 반작용으로 예상된다. 한편 태양광(-9%)과 반도체(-14%)에 대한 보조금도 전년동기 대비 줄었지만 절대 규모가 여전히 크고, 하락폭도 전체 평균보다 작다.

지난 5년간 보조금이 빠르게
늘어난 산업: 2차전지, 태양광,
물류, 통신서비스, 반도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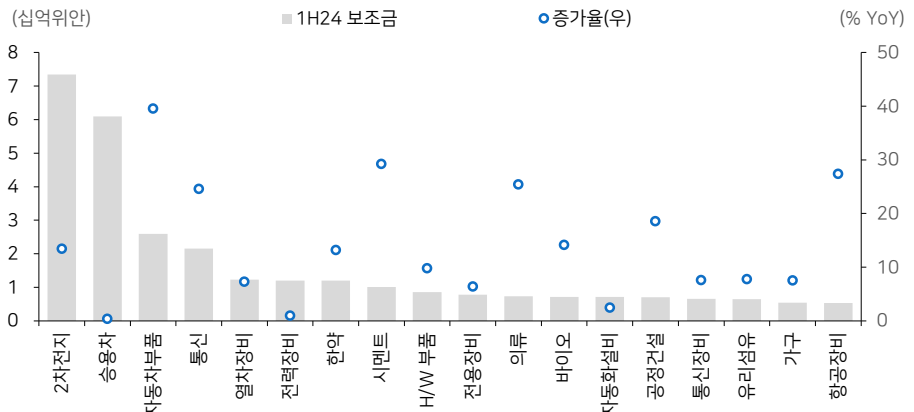
그림4 '23년 보조금 상위 Top20 업종들의 5년간('18-'23) 연평균 증가율



자료: Wind,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1H24 보조금 증가 산업:
2차전지, 자동차 및 부품, 통신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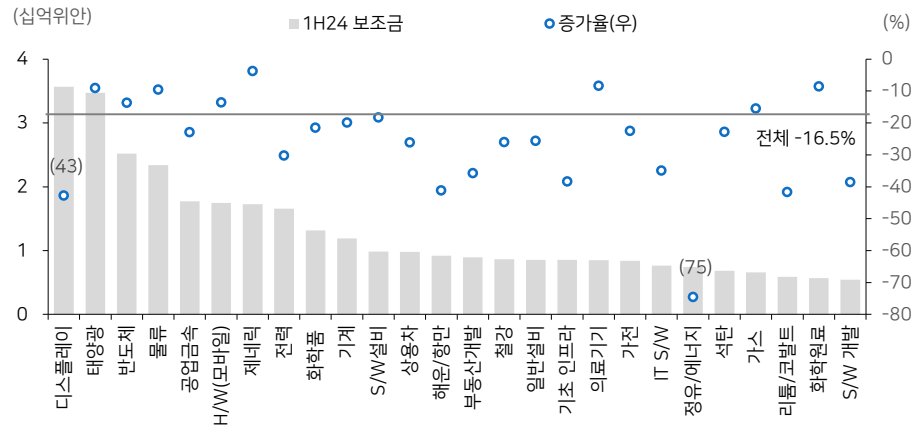
그림5 '24년 상반기 보조금이 작년 상반기보다 늘어난 업종들



자료: Wind,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1H24 보조금 감소 산업:
디스플레이를 비롯한 전통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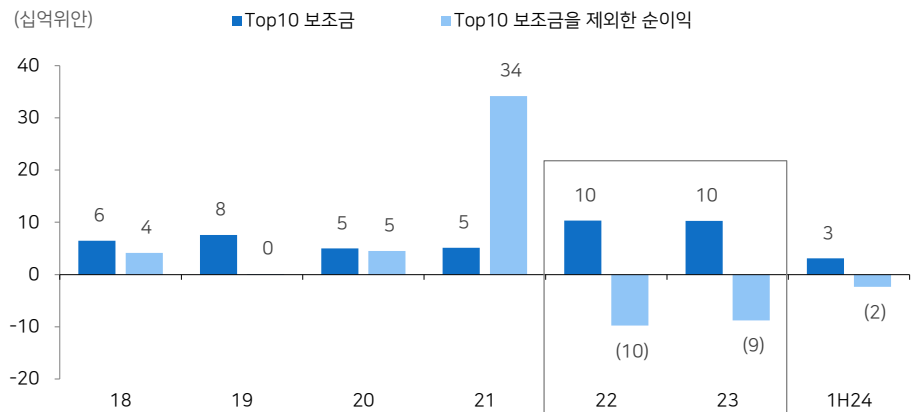
그림6 '24년 상반기 보조금이 작년 상반기보다 감소한 업종들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올해 디스플레이 보조금 감소는
지난 2년간 역기저 때문, 현재
예년 수준으로 회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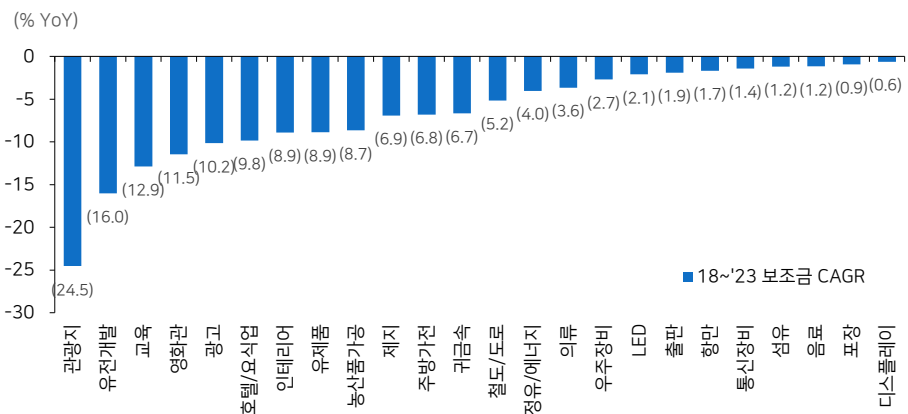
그림7 '22~'23년 디스플레이 Top10* 상장사 실적 부진에 정부 보조금 급증



주: Top10 상장기업은 8월 말 시가총액 기준
자료: Wind,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지난 5년간 보조금이 크게 감소한
산업: 관광지, 유전개발, 교육 등

그림8 '18~'23년 보조금의 연평균 증가율이 감소한 업종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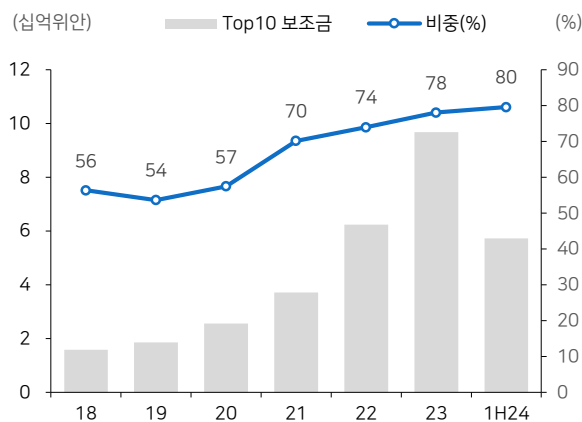


자료: Wind,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동향3: 상위 기업 지원 강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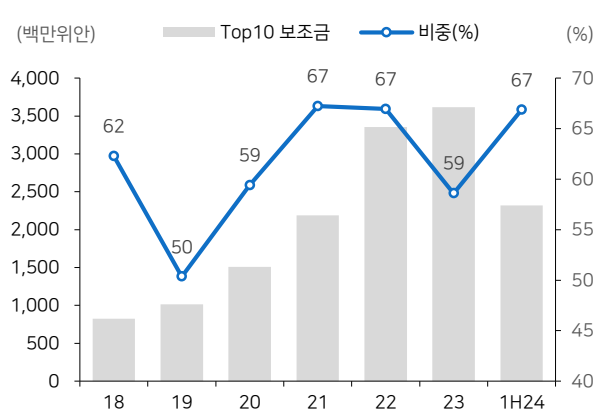
동향 3: 주요 산업 내 상위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강도는 점점 강화되고 있다. <그림 9~1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 차전지, 태양광,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대부분의 산업에서 상위 10 개 기업에 지급된 보조금 비중은 꾸준히 증가했다. 이러한 현상은 업종별 보조금이 늘어나든 감소하든 일관되게 나타났다. 이는 과거처럼 산업 내 다수 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상위 경쟁력이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글로벌 선두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키우려는 정부의 전략적 전환으로 보인다.

그림9 2차전지 산업 내 Top10 기업 보조금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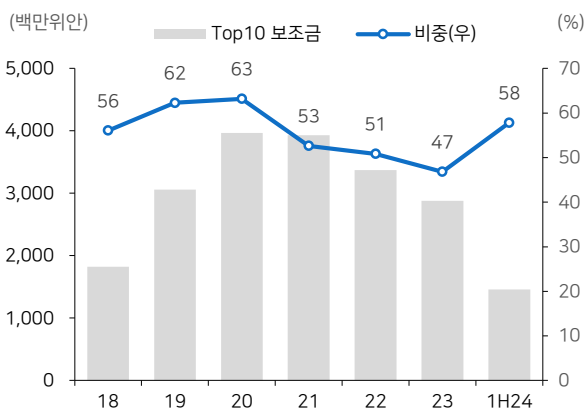
주: 상위 10개 기업은 해당 산업 내 기업들의 시가총액 순, 8월 말 기준
자료: Wind,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태양광 산업 내 Top10 기업 보조금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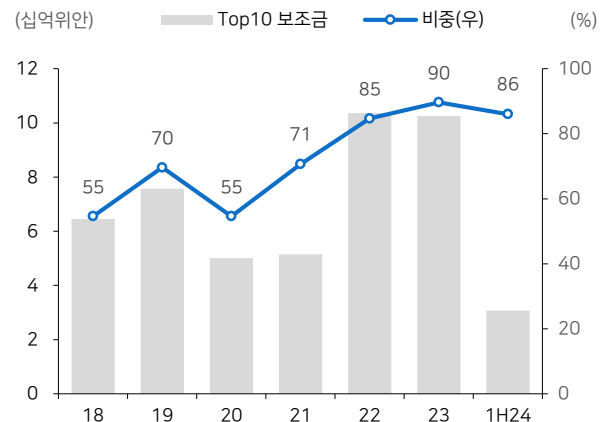
주: 상위 10개 기업은 해당 산업 내 기업들의 시가총액 순, 8월 말 기준
자료: Wind,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1 반도체 산업 내 Top10 기업 보조금 비중



주: 상위 10개 기업은 해당 산업 내 기업들의 시가총액 순, 8월 말 기준
자료: Wind,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2 디스플레이 산업 내 Top10 기업 보조금 비중



주: 상위 10개 기업은 해당 산업 내 기업들의 시가총액 순, 8월 말 기준
자료: Wind,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CATL 보조금 압도적

실제 기업별 보조금 현황을 보면 이 추세는 더욱 분명하다. 2차전지의 대표기업인 CATL은 2023년 한 해 동안 약 57억 위안(약 1조 1천억 원)의 보조금을 받았고, 올해 상반기에도 38억 위안(약 7,200억 원)을 지원받아 다른 기업들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많은 금액을 수령했다. 또한 보조금 수령액 기준 상위 20개 기업 중 10억 위안(약 1,900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단 7곳에 불과해, 각 산업의 핵심 기업에 대한 지원이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징코솔라, TCL/BOE 등 태양광, 디스플레이, 자동차 부품 업종에서의 대표 기업들이 여전히 정부 보조금 없이 자립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 아쉽다.

표1 '24년 상반기 정부 보조금 기준 Top20개 기업과 순이익 대비 보조금 비율

	기업명	업종	시가총액 (백만원)	보조금 (백만원)						순이익 대비 보조금 비율 (%)					
				2019	2020	2021	2022	2023	1H24	2019	2020	2021	2022	2023	1H24
1	CATL	2차전지	797,020	646	1,136	1,673	2,702	5,725	3,847	14	20	11	9	13	17
2	장안자동차	승용차	101,745	1,538	798	1,336	1,134	1,463	1,471	-58	24	38	15	13	52
3	장성자동차	승용차	159,931	609	1,267	2,196	1,815	2,031	1,356	14	24	33	22	29	19
4	징코솔라	태양광	70,437	73	248	759	1,320	1,451	1,268	5	24	66	45	20	106
5	비야디	승용차	671,738	1,484	1,678	2,263	1,710	2,187	1,210	92	40	74	10	7	9
6	광저우자동차	승용차	59,994	2,902	1,281	995	1,011	862	1,052	44	21	14	13	19	69
7	SMIC	반도체	181,702	2,039	2,489	2,441	1,946	1,677	1,001	114	57	23	16	35	61
8	TCL	디스플레이	72,299	1,171	737	699	1,323	2,764	973	45	17	7	506	125	98
9	상해자동차	승용차	140,871	4,718	3,079	4,032	3,659	4,050	852	18	15	16	23	29	13
10	차이나모바일	통신	1,465,753	1,277	1,695	1,984	2,427	2,628	820	1	2	2	2	2	1
11	BOE	디스플레이	143,124	2,641	2,332	2,078	5,459	3,794	768	138	46	8	72	149	34
12	중국중차	열차장비	187,137	1,605	2,727	2,230	1,972	1,558	734	14	24	22	17	13	17
13	EVE Energy	2차전지	66,609	28	127	378	1,021	1,478	711	2	8	13	29	36	33
14	차이나유니콤	통신	147,237	807	507	637	873	959	661	16	9	10	12	12	11
15	차이나텔레콤	통신	540,573	1,051	855	1,004	1,116	1,186	595	5	4	4	4	4	3
16	페트로차이나	정유/무역	1,594,029	1,014	1,347	837	1,203	2,496	583	2	7	1	1	2	1
17	헝리(Hengli)	정유/무역	92,987	612	937	761	1,594	639	577	6	7	5	69	9	14
18	국태군안	증권	118,929	619	564	555	699	963	565	7	5	4	6	10	11
19	TZE	태양광	32,426	213	349	135	324	989	543	24	32	3	5	29	-18
20	SENSTEED	자동차부품	10,697	22	27	33	27	21	521	-0	-3	-1	-3	-1	-83

주: 음영으로 표기한 기업들은 순이익이 보조금보다 적거나 적자인 경우

자료: Wind,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정부 보조금 현황에서 얻는 2가지 시사점

이러한 변화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2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시사점1: 재정 여력 약화 영향
가시화, 앞으로 추가 감소**

첫째, 중국 정부의 재정 여력 약화가 상장사 보조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중국 경기가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고 정부의 재정 여력도 크게 보장되지 않는다면, 보조금 총액은 점차 감소할 가능성이 높으며, 산업별 및 기업별 지원 강도는 더욱 차별화될 전망이다. 보조금 총액의 감소는 단기적으로 전체 상장기업의 실적 부진을 초래할 수 있겠으나, 중기적으로 정부 지원이 약해지는 산업에서 시장화가 진전되며 진정한 우량 기업이 선별될 수 있을 것이다.

**시사점2: 신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 공급과잉 해소 가시성 낮아**

둘째, 중국 정부는 여전히 2차전지, 자동차, 통신, 태양광, 반도체 등 산업을 전략적인 산업으로 보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산업 고도화 전략과 일치하지만, 그동안의 과도한 투입으로 2차전지와 태양광 산업은 이미 공급과잉으로 인해 제품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전지 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은 여전히 가장 많았으며, 태양광 산업에서도 보조금의 유의미한 감소는 나타나지 않아, 이들 산업의 공급과잉 문제가 단기간 내 해소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반면 반도체, 정유/에너지,
디스플레이 보조금은 축소**

반면 반도체, 정유/에너지, 디스플레이 등 일부 산업은 올해 상반기 정부 보조금이 감소했다. 정부 보조금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지만, 상반기 감소폭이 큰 점으로 미루어볼 때 올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낮아 해외 경쟁 기업들에게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칼럼의 재해석

김선우 연구위원

AI Capex의 게임 이론 (Sequoia Capital, Bloomberg)

빅테크간의 경쟁적인 Capex 투자가 매출액으로 연결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며 'AI 거품론'이 시장에서 대두되고 있다. AI가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데이터센터가 필수적이고, 앞다투어 짓고 있다. 데이터센터를 구성하는 제품들의 타이트한 수급 상황이 지속되어, 물량 확보는 곧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기에 과도한 Capex는 합리적인 선택일 것이다.

'수익성 없는 기술에 대한 막대한 투자는 거품을 야기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확산되며 주가 변동성은 확대되었다. 하지만, 지난 닷컴 버블과 같은 시장의 폭락을 우려하기에는 1) 경기 연착륙의 수준, 2) 자산 이동의 변화, 3) 가격(밸류에이션) 수준의 차이로 인해 다른 국면을 맞이할 것이다.

AI Capex는 산업적 역량을 총 동원하여 인프라를 건설하는 것을 총칭한다. 데이터센터는 향후 15년동안 사용될 핵심 자산이기에 신중한 Capex 집행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AI 기술의 결과물에 대한 기다림이 요구된다. 경쟁적인 데이터센터 건설은 향후 AI B2C 스타트업들에게 많은 기회를 창출할 것이며, 생태계 구축을 가속화할 것이다. AI 기술은 Capex 규모전이 아닌 속도전임을 상기하고 인내심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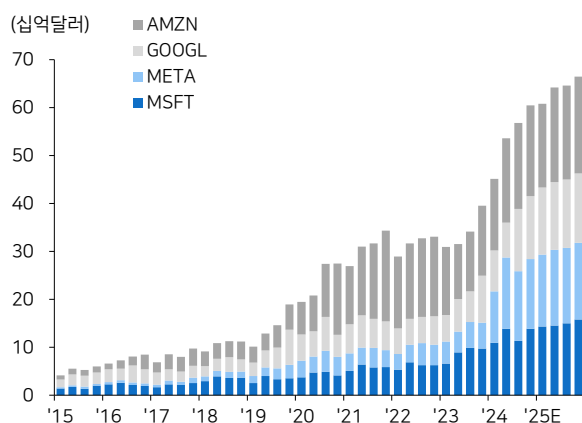
빅테크간 불붙은 AI 기술패권 전쟁

AI 기술에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었지만, 뚜렷한 수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실망감에 "AI 거품론"이 확산되고 있다. AI 시장 선두주자가 되기 위한 M7의 게임 이론적 상황이 전개되면서 과잉투자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기 시작하였다.

AI산업의 게임 이론적 상황 전개:
M7의 경쟁력 지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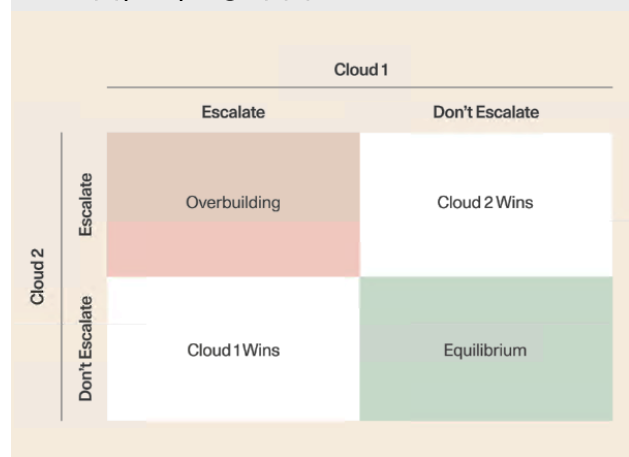
게임이론이란 경쟁 상대의 반응을 고려해 자신의 최적 행위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의 의사결정 형태를 의미한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를 확대할 때마다 아마존도 이를 따라잡기 위해 투자를 확대할 동기를 얻는 일련의 과정이다. 데이터센터에 적합한 부지, 반도체, 전력 인프라 등을 앞서 확보하지 않으면 경쟁자가 그 기회를 가질 것이기에 자신의 비즈니스를 지키기 위한 방어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 또한, 투자 규모는 AI 시장에 대한 자신감의 근거가 되기에 현재 AI 투자 상황은 게임 이론에 부합하며, 과도한 Capex는 합리적인 선택일 것이다.

그림1 미국 주요 빅테크의 Capex 투자 추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내쉬(Nash) 균형 시나리오



자료: Sequoia Capital

AI 기술 투자, 닷컴 버블 때와는 다르다

과도한 기대, 닷컴 버블의 시작

1990년대 전자상거래라는 새로운 산업이 떠오르면서, 닷컴 기업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새로운 산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익성 없는 닷컴 기업들에게 수백만 달러의 투자금이 몰리는 상황이 발생했다. 기업들은 투자금을 공격적으로 활용하며 턴어라운드를 시도하였지만, 적자 폭은 확대되었다. 결국, 2000년 3월 닷컴 버블이 터지기 시작하였고, 나스닥지수는 같은 해 10월까지 약 78% 폭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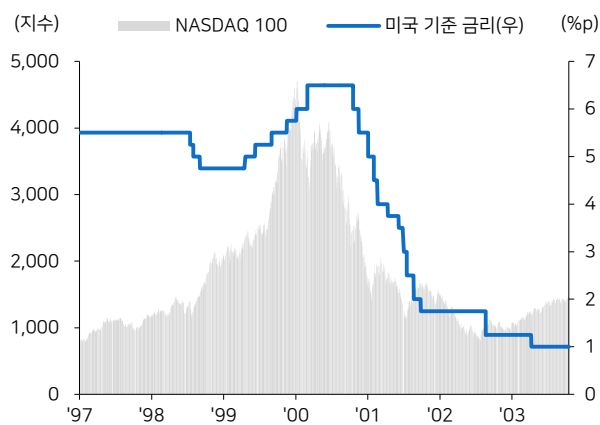
AI Capex 경쟁, 닷컴 버블 때와 확연히 다르다.

현재 AI 기술도 가시성 있는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진 않다. 또한, 빅테크 간의 경쟁적인 Capex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어 닷컴 버블이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 섞인 시각이 존재한다. 하지만, AI 기술 투자는 닷컴 버블 때와 확연히 다른 상황이다.

1) 경기 연속록의 차이 경기 침체 → 경기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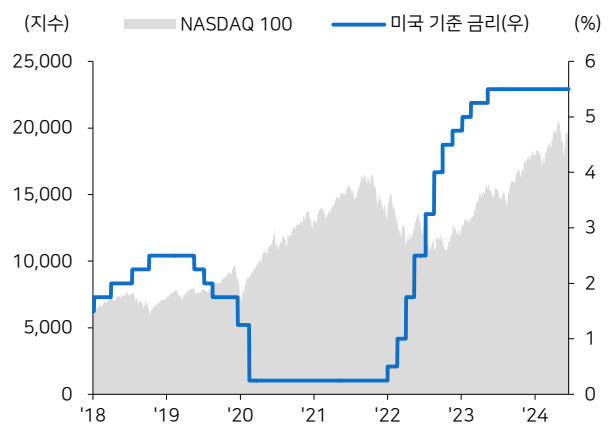
1) 경기 연속록의 차이이다. 2000년 닷컴 버블이 터지면서 기업들의 투자와 소비 경기가 위축되기 시작되었고, Fed는 금리를 신속하게 인하하며 경기 연속록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911 테러가 발생하면서 미국의 국경선 폐쇄, 여객선 운항 중지, 내수 소비의 급격한 감소 등으로 경기 침체에 빠지게 되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의 매크로 상황은 실업률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많은 경제 지표가 견고하다. 인플레이션 또한 완화되어 선제적인 금리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

그림1 닷컴 버블 당시 나스닥100 지수와 미국 기준 금리 추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현재 나스닥100 지수와 미국 기준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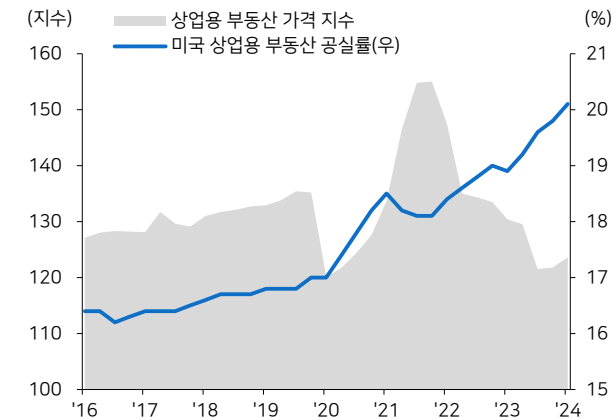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2) 자산 이동의 변화 상업용 부동산 → 데이터센터

2) 자산 이동의 변화이다. 911테러 이후 시장 참여자들은 리스크 기피 목적으로 금, 미국채 등 안전자산으로 투자처를 대거 이동시켰다. 이후 유례 없는 1%대 초저금리가 지속되면서 민간 주택 수요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 금리 인하시 같은 양상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코로나-19와 AI 생태계 발전으로 재택 근무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주요 대도시의 상업용 부동산의 투자 매력도는 다른 실물 자산 대비 낮아졌으며, 그 대안책으로 데이터센터, 물류센터, 원전 등의 실물 자산이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위 시설들은 AI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핵심 자산이며, AI 기술 발전에 가속을 더할 여력이 있다. 즉, 이번 금리 인하로 자산의 이동이 발생해도 AI에 여전히 호의적인 환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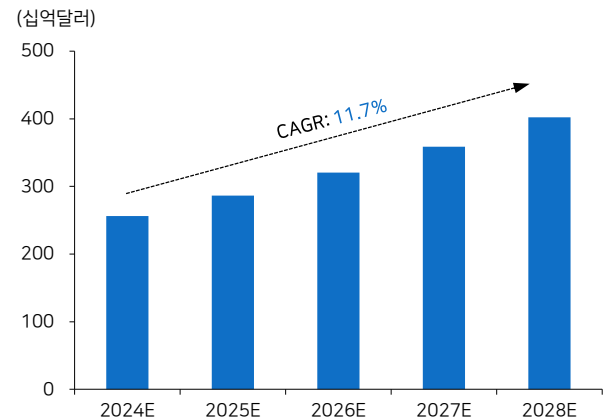
그림1 미국 상업용 부동산 가격 지수 및 공실률



주: 2007년 8월 가격이 기준점: 100

자료: Bloomberg, Green Street,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데이터센터 시장 규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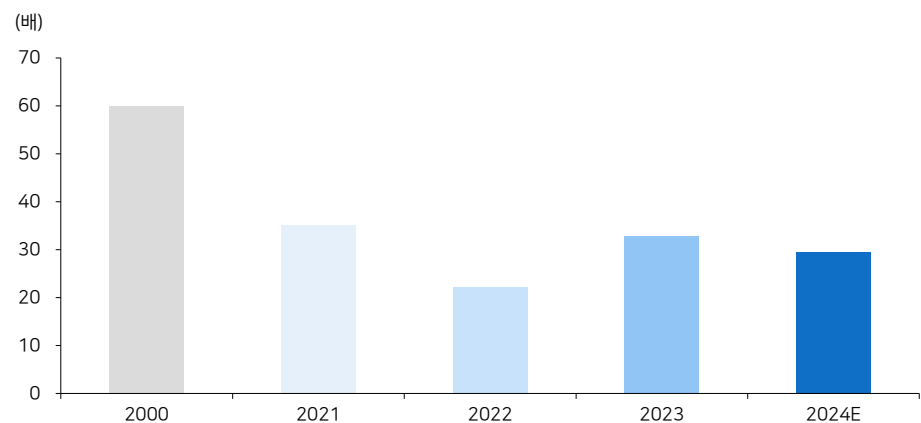


자료: Precedence Research,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3) 가격(밸류에이션) 수준의 차이 12MF PER 60.1배 → 31.2배

3) 가격(밸류에이션) 수준의 차이이다. 2000년 3월 나스닥100 12M Fwd PER은 60.1배 수준이었지만, 2024년 8월 31.2배로 반절 수준이다. 닷컴 버블 당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기업 중심으로 주가가 폭등하였지만, 현재는 탄탄한 수익구조를 갖춘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어 차이를 보인다. 닷컴 버블의 생존자인 아마존을 비롯한 빅테크 기업은 이미 과도한 비용 집행의 위험성을 학습하였다.

그림1 NASDAQ100 12M Fwd PER 비교



자료: Barr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데이터센터는 장기 핵심 자산,
Capex 투자에 전략적 접근

“AI 투자” 산업적 역량의 집합체로 수익 창출까지 장기적 관점 필요

“AI Capex”는 토지, 전력 인프라, 반도체 등 산업적 역량을 총 동원하여 데이터센터 등을 건설하는 것을 총칭한다. 데이터센터는 기업의 핵심 자산이기에 전략적 입지, 에너지 공급 방안, 반도체 및 냉각 기술, 디자인 등 많은 자원과 긴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므로 즉각적으로 Capex 집행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시장은 AI 기술을 활용한 수익 창출 가능 시점에 대한 기다림이 필요하다.

표1 빅테크 데이터센터 투자 계획		
업체	투자 금액	투자 내용
구글	10억달러	(2024/1/18) 런던 외곽에 데이터센터 구축
	20억달러	(2024/5/30) 말레이시아에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시설 구축
	23억달러	(2024/6/18) 오하이오주 데이터센터 3곳 증설 및 구축
	8.5억달러	(2024/8/29) 우루과이에 데이터센터 구축
마이크로소프트	34억달러	(2024/2/15) 독일에 데이터센터 구축
	29억달러	(2024/4/9) 일본 데이터센터 2곳 증설
	100억달러	(2024/5/1) 버지니아 데이터센터 재생 에너지 인프라 투자
	22억달러	(2024/5/1) 태국과 말레이시아에 데이터센터 구축
	22억유로	(2024/7/3) 스페인에 데이터센터 구축
아마존	58억달러	(2024/3/19) 한국에 데이터센터 구축
	90억달러	(2024/5/7) 싱가포르 클라우드 서비스 확장
	150억달러	일본 클라우드 설비 구축
	50억달러	멕시코 설비 투자
	50억달러	사우디아라비아 설비 투자
메타	8억달러	(2024/1/25) 인디애나 데이터센터 구축
	8억달러	미네소타 데이터센터 구축
	8억달러	(2024/5/2) 앨라배마 데이터센터 구축

자료: 언론 종합,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I 기술 경쟁,
AI 생태계 구축 가속화

AI Capex 경쟁은 향후 AI 생태계에 긍정적

오늘날의 경쟁적인 데이터센터 건설은 앞으로 AI 스타트업들에게 수많은 기회를 창출할 것이다. 이는, B2B 시장 위에 구축되는 B2C 시장의 스타트업들에게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과 같다. 빅테크 간의 게임 이론적 상황은 향후 API 가격을 낮추는 데 기여하여 AI 생태계 구축을 가속화할 것이다.

원문: The Game Theory of AI CapEx, Three Big Differences Between the AI and Dot-Com Bubbles (Sequoia, Bloomberg)